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 해외의 동향



윤정옥*

머리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1998년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에서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시애틀 도서 센터 주관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매우 성공적인 풀뿌리 독서운동이다. 흔히 ‘One Book (한 책)’ 읽기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독서운동은 한 도시에서 모든 시민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독서 분위기를 진작하고,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1년 8월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하퍼리(Harper Lee)의 풀리처상 수상작인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를 온 시카고 시민이 읽자고 했던 행사가 외신을 통하여 미국 전역 및 해외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부터 매우 빠르게 그 영향력이 퍼져나갔다.

미국 의회도서관 도서 센터(The Center for the Book)의 웹 사이트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읽기 프로젝트를 열거하고 있는데, 2004년 5월 현재 미국 내 48개 주의 239개 지역에서, 주마다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십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5월에는 모두 38개 주 90여 개 도시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밖에서는 캐나다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나, 9월에는 미국 내 46개 주 및 캐나다, 영국, 호주가 이 운동을 진행하여 모두 153개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충남 서산시가 지난 해 10월 추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또한 순천시와 부산시가 각각 독자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한 책’ 운동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운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전임강사, jade@cju.ac.kr

주요한 '한 책' 운동 사례

'한 책' 운동의 연원이 된 '시애틀 전 시민이 책 한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of Seattle Read the Same Book)' 프로젝트는 시애틀 시 자체가 하나의 확장된 도서 토론 그룹이 되도록, 시민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데서 시작되었고, 그 목표는 "광범위한 청중 — 확실한 도서애호가로부터 아직까지 책과 독서는 자기들의 삶에 기본적으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까지 — 에게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매년 한 사람의 주요한 현대작가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며 그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해인 1998년에는 Russell Banks의 *The Sweet Hereafter*, 1999년에는 Ernest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 2001년에는 Bill Moyers의 *Fooling with Words: A Celebration of Poets and Their Craft*, 2002년에는 Molly Gloss의 *Wild Life*를 각각 선정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 출신 작가인 이창래의 *'A Gesture Life'*를 선정하여 더욱 주목받았다. 2004년부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Seattle Reads...'로 바꾸고 한 작가의 한 작품 대신, 한 작가의 주요한 여러 작품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심화된 독서활동을 수행하도록 진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칠레 출신의 작가인 Isabel Allende를 선정하여, *My Invented Country: A Nostalgic Journey through Chile* 등 일곱 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애틀 도서 센터는 작가가 방문하기 전에 2~3개월 동안 수백 권의 도서를 배포하고, 동시에 "연장통(toolbox)"이라고 불리는 독서 토론 자료집을 만들어 작가 소개, 작품의 배경 자료와 연구 및 토론 지침 등을 수록하고 도서관과 서점 등에서 배포하여 독자와 토론의 길잡이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도서의 선정, 토론,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시민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누구든 토론의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약에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책을 읽는다면'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시애틀 시의 '한 책' 프로젝트는 공공도서관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파고 들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시애틀이 '한 책'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시카고의 '한 책, 한 시카고(One Book, One Chicago)' 프로젝트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8월 25일 시카고 시와 시카고 공공도서관은 온 시민이 9월 한 달 동안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10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리는 시카고 도서주간(Chicago Book Week: City of Book Readers)에 참여하여 토론하도록 초청하였다. 이로써 매우 다양한 인구집단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 대도시인 시카고 시 전체가 '한 권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독자와 토론의 문화를 조성하면서, 하나의 도서 클럽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두 개의 지역 도서관,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 및 75개의 지역 분관으로 구성된 시카

고 공공도서관은 이미 소장하고 있던 '앵무새 죽이기' 1,200부에 추가로, 영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판 등을 구입하여 모두 3,678권을 준비하였는데, 이 책들은 7주의 '한 책' 운동 기간 동안 모두 6,500회 대출되었고, 이는 통상 동일한 기간 동안 140회 정도 대출되었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증가폭을 보인 것이었다. 아울러 지역의 서점들 및 Amazon.com 등 전국 온라인 서점 네트워크에서도 '앵무새 죽이기'의 판매고가 유례없이 급증하여, 이 책이 대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16쪽으로 된 자료 안내서를 제작하여 도서관과 지역의 서점들에서 40,000부를 배포하고, 웹 사이트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서관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거나 어떤 유형의 독서 토론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서관 뿐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숍이나 서점들에서 독서 토론을 주관하였는데, 도서관에서 진행된 28회의 독서 토론에는 평상시의 월 평균보다 두 세배 늘어난 참가자 수를 보였다. 또한 그레고리 펙과 로버트 듀발 주연의 영화 '앵무새 죽이기' 상영, 연극 공연 및 소설의 핵심적 내용인 탐 로빈스의 재판 장면을 지역의 법률가들이 모의재판으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텍스트 읽기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즉, 독서보다 영상 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에게 유인을 제공하고, 현장감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의 도움을 추구하는 것도 독서운동이 개방적인 문화적 경험으로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책 한 시카고'는 '앵무새 죽이기'의 성공에 힘입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데, *The Things They Carried* (Tim O'Brien), *A Raisin in the Sun* (Lorraine Hansberry), *My Antonia* (Willa Cather), *Night* (Elie Wiesel), *The Coast of Chicago* (Stuart Dybek)와 같이 보편적으로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는 미국의 다양한 경험을 그린 책들을 선정하여, 이 운동이 목표로 하는 '도발적인 토론(provocative discussion)'을 촉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 책' 프로젝트가 시 단위로 진행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인문학위원회(CCH)가 주관하여 주 전역을 대상으로 '분노의 포도 읽기(Reading the Grapes of Wrath)'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모두 184개의 도서관이 1,000여 회의 행사를 치렀다. 이 프로젝트는 존 스타인벡의 노벨상 수상작인 작품을 중심으로 한 독서와 토론 뿐 만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캘리포니아 역사, 사회, 문화를 돌아보고, 이민, 인권, 노동자, 검열, 지적 자유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샌 라피엘 공공도서관이 후원한 십대 대상 수필 콘테스트, 프레즈노 도서관이 후원한 24시간 독서회(readathon), 캘리포니아 주립 문서보관소가 주관한 '분노의 포도' 시대인 대공황기의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전시, 로스앤젤레스의 The Getty Center에서 열린 당시의 기록 사진작가인 Dorothea Lange의 작품 전시회, KCET 텔레비전에서 '분노의 포도'에 영감을 주었던 라몬트 지역의 Arvin Federal Camp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영 등이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스타인벡의 책을 읽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문제들을 토론"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고 있었지만, 대학, 노동단체 및 문화와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수많은 다른 기관, 단체가 참여하였고, 캘리포니아와 같이 커다란 주 차원에서 '한 책' 읽기라는 동일한 문화적 체험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캐나다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Canada Reads'는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국인 CBC Radio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한 책' 운동이다. '한 책' 운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도시가 단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읽게 하는 것과는 달리 'Canada Reads'는 다섯 권의 책을 중심적인 읽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가운데 이 한 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라디오로 방송함으로써 모든 청취자 혹은 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거의 백만의 캐나다인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점자나 청각자료와 같은 형태로 Canada Reads 책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캐나다 국립시각장애인협회(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와 같은 기관과도 협력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독서운동으로서 만전을 기하였다.

'Canada Reads' 프로젝트에서 특기할 사항은 여러 지역에서 도서관이 행사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CBC Radio이라는 점이다. 즉, 라디오 방송국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다양한 공익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오락이 아닌 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 특히 캐나다 작가의 작품에 대한 독서와 이해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2002년에 선정되었던 다섯 편의 후보소설은 'Canada Reads (Dramatically)'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극화하여 방송되었다. 2003년의 프로그램은 3월 3일에 CBC Radio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는 캐나다 저명인사 다섯 사람의 오디오 클립을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개시되고, 켈거리, 살럿타운, 위니펙, 토론토 등 캐나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토론회, 작가의 작품 낭송회, 패널 토론의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특집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캐나다 작가조합(The Writers' Trust of Canada)이 주관하는 '문학적 풍경과 문학적 장소(Literary Landscapes and Literary Sites)' 주제의 캐나다 도서주간(Canada Book Week 2003: 4월 21일~27일) 행사가 열렸고, 캐나다 전역에서 모든 연령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작품의 '읽기'와 더불어 작품의 극화 방송, 여러 행사에서 작가들의 작품 낭송 등 '듣기'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맺음말

나라마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이 '한 책' 운동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시 혹은 시민의 문화적 역량, 결집도 그리고 독서환경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시각에서 이 운동의 성공을 평가하거나 모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한 책’ 운동이 공유하는 주요한 특성은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한 책’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디에서든 독자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여러 행사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바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것이다. 독서운동이라고 하여도 배타적으로 텍스트로서의 책을 읽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영화, 연극과 같이 다른 매체로도 같은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보다 폭넓을 수 있게 한다.

둘째, ‘한 책’ 운동은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도서관들에서 이미 지속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한 책’ 프로젝트가 2002년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일 년에 두 번 ‘한 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시카고 시와 같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 년에 한 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아직 2004년의 완전한 통계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2004년 6월 현재 118개 프로젝트가 2003년에 이어, 이미 2004년 선정 도서를 수록하고 있다.

셋째, ‘한 책’ 운동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지역마다, 프로젝트마다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거의 대부분이 성인 독자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의 브리스톨 시처럼 어린이와 어른 모두 읽을 수 있는 ‘보물섬’과 같은 명작을 채택하는 경우, 시애틀 시나 캘리포니아 주의 카멜시, 매사추세츠 주의 마르타스 비니어드 시처럼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각각 책을 선정하고,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도 종종 눈에 띈다. 또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책을 선택하기도 하여, 예를 들어 텍사스 주는 2002년 그 지역 작가인 Larry McMurdy의 풀리처상 수상작인 *Lonsome Dove*를 선정하였고, 캐나다의 ‘Canada Reads’도 매년 그 나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 주요한 목표가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문화적 체험’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 지역사회의 문화와 특성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명칭도 매우 다양하다. 콜로라도 주 덴버 시의 ‘One Book, One Denver,’ 플로리다 주의 ‘One Book, One Community,’ 콘네티컷 주의 ‘One Town, One Trilogy: One Book at a Time’ 등과 같이 ‘한 책’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가 하면, 일리노이 주의 ‘Peoria Reads,’ ‘Princeton Reads Together,’ 캔사스 주의 ‘United We Read’ 처럼 온 지역이 같이 읽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켄터키 주의 ‘What If All Kentucky Reads the Same Book,’ ‘If All Buffalo Read the Same Book’ 과 같이 시애틀 프로젝트에서 유래한 긴 이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앨라배마 주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네 개의 도시가 ‘Get Caught Reading’, ‘Mobils’ s Book: A Shared Experience’, ‘One Book’, ‘Same Book, Same Time’ 이라고 각각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개별 프로젝트가 선택하는 이름은 매우 다양하다.

넷째, 지금까지 '한 책' 운동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을 볼 때, 어쩌면 '한 책, 한 나라'의 비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앵무새 죽이기' 같은 책은 지금까지 서로 다른 지역의 이십여 개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었고, Ernest Gaines의 *A Lesson Before Dying* 이나 최근의 베스트셀러였던 Russel Banks의 *The Sweet Hereafter*, David Guterson의 *Snow Falling on Cedars*, Charles Frazier의 *Cold Mountain*, Ray Bradbury의 *Fahrenheit 451*과 같은 작품들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동시에 선정되어 읽히고 있다. '한 책' 프로젝트가 주로 시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분노의 포도 읽기', 오클라호마 주의 'Oklahoma Reads Oklahoma' 나 버지니아 주의 'All Virginia reads' 처럼 주 단위로 진행되기도 하며, 캐나다의 'Canada Reads' 나 미국 버지니아 도서 센터가 주관하는 중·고등학생 중심의 'All America Reads' 처럼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처럼 여러 곳에서 선호하는 특정한 책을 모두 함께 선택한다면 '한 책, 한 나라'와 같이 확대된 독서운동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책'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시와 공공도서관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 학교,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도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독자 등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적 사회문화 운동'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상이한 다른 나라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같은 형태와 성과로 접목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앞서서 제시한 '한 책'이라는 아이디어가 디지털에 열광하는 대중과 사회에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모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보다 활기 있고 새로운 독서 문화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더욱이 혼자 읽고 느끼고 멈추는 독서가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참여하는 독서로 확대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책 읽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